

<1.2월에 보내는 말라위 선교편지>

2026년도 새해도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어느 덧 2월 중순입니다.

세계정세가 불예측 상태로 되어가고 이상기온이 다른 해보다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미는 추워서 난리이고 아프리카는 폭우와 홍수로 다리가 부숴지고 옥수수 농사지역에 부분적으로는 비가 적게 와서 난리이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내려서 국가가 비상기도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 말라위 현상황



새해가 되자마자 그동안의 말라위의 휘발유 가격이 너무 싸다는 이유로 1리터에 4950과차(2.5볼 상당)로 올리자 모든 물가들이 동반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건물을 건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갈수록 재난 정도가 심해짐을 느낍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위 현지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상대차선을 침범했을 때에도 오히려 하이빔을 키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의 자녀도 길을 건너다가 급히 달려 오는 차에 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말라위는 운전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 운전하려면 오른쪽 핸들이 익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방어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도둑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목사님 동생가족도 지난 폭우에 고향집이 무너져 내려 6살 딸아이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릴롱웨 근처에 있었다면 아마 저희가 집도 지워주고 도움을 주었을 텐데 서울에서 부산거리에 있는 시골이라 도움을 주지 못해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느 오토바이 택시운전사는 강도를 당하여 핸드폰과 오토바이를 빼앗기고 살해 당했습니다. 장례를 치루러 온 어머니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 그의 어머니마저 죽어 쌍초상을 치루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젊은 이는 비오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로컬 화장실이 무너져 내려 변사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모든 교인들에게 화장실을 점검해보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전정부의 각료가 9명씩이나 부정스캔들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새 정부 들어 정치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 문해사역



말라위는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못쓰는 사람이 60%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빌리지의 형편은 70%를 상회합니다. 원래는 성경읽기 사역을

하였는데 성경책을 주어도 의미가 없어 아예 글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문해사역과 더불어 만나 바이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숫자가 늘고 있고 관심도 커져 차파타 빌리지가 안정되어지면 분다 빌리지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문해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 시험을 치루어 출석과 성적이 향상된 현지인들에게 옥수수가루를 선물로 주어 공부에 대한 의욕을 돋구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정도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성경공부도 많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한국도 67,70년대에 글을 모르는 문맹인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의무교육 실행과 아울러 야학의 열심으로 이제는 문맹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문해사역을 통해 성경읽기와 복음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 유치원사역



항상 활기차게 사역하는 어린이 사역은 선교사의 기쁨이자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역에 매일 유치원 사역을 하는 것은 빌리지의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래의 아이들이 후미진 빌리지 안에서 겜블링(노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 하거나 술 마시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제법 많아져서 제법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양죽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출출한 어른들도 간식으로 즐겨먹곤 합니다.

이제는 분다 어린이 유치원을 개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 훈련과 아울러 어린이들의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팀이 증정해준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자 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공간입니다.

자라나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말라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음세대의 주역들입니다. 말라위를 사랑하는 분들은 중보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 옥수수사역



함께하는 교회의 후원에 힘입어 처음으로 대규모 옥수수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다

보니 어느덧 옥수수 키가 사람키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씨앗값과 비료값이 너무 비싸 수익성이 맞을지는 일단 두고 볼일입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교회식구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 다소 체계가 없지만 모두가 열심으로 자기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수수 값과 생산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첫 농사이니 만큼 기대가 큼니다.

이렇게 옥수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교회와 J 목사님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헝거시즌에 옥수수를



항상 헝거시즌이면 먹을 옥수수 가루가 없어 난리인데 금년에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가루 즉 우파와 옥수수를 풍성하게 나눠 줄 수 있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항상 부족 했었는데 이번의 헝거 시즌에는 충분하게 나눠 줄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후원의 손길을 주신 여러 후원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읽기와 문해사역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었고 교회성도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심은 옥수수가 자라지를 못하고 또 어떤 지역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부에서는 비를 내려달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전국적인 농사의 균형이 맞지 않아 내년도 옥수수 가격이 불확실해질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비교적 작황 실적이 좋은 데다 주변국인 모잠비크와 잠비아에서 옥수수를 들여오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제 3월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모임



항상 아프리카 어린이를 사랑하고 후원해오고 있는 음토토 아프리카 미션에서 고아와 과부 숫자를 파악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파악을 하였더니 32명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위로사역으로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헝거 시즌이기에 옥수수 가루와 빨랫 비누인 가루비누 한봉지씩을 선물로 주었더니 너무 행복해 하였습니다.

선진국인 캐나다나 한국에서는 우파 한봉지와 세제 한봉지가 아주 작

은 일상용품에 불과하지만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참으로 귀한 선물이
자 위로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경공부 모임과 매주 금요일에 있는 기도회에도 열
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몇몇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가르
침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때 내 주위에 잇는 고아와 과부등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시
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샬롬

- 사륜구동차



선교지에서 십년의 염원인 사륜 구동차를 타고 사역하는 것이었습니
다.

선교지에서 가장 후원이 잘되는 것이 우물과 성전 건축이고 가장 후
원이 안되는 것이 차량후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하고 사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세가지 마귀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비자와 동역자 그
리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탄의 역사가 강한 영역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느 의사 선생님의 종잣돈과 저희를 말라위로 인도해주신 어느 선교사님의 차량후원과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사위와 딸의 후원과 더불어 바다가 보이는 제주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만난 하나님의 섭리로 알게된 귀한 젊은 부부의 후원에 의해 정말로 마음에 드는 토요타 하이럭스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 작동 및 드라이버 컨트롤 제어기능 불가라는 메시지가 떠서 여러 군데의 자동차 정비센터를 거쳤습니다. 급기야는 토요타 센터에 약2주 정도를 맡기어 검사 및 고장수리를 하였습니다.

차정비 및 수리를 다 하였다기에 다시 운행하던 중 똑 같은 메시지가 자동차 스피드미터에 나와 토요타센터에가서 Complain을 하였더니 이차 예전에 대형사고가 나서 차체가 부러져 용접을 하여서 더 이상 못고치는 차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캄캄 해지고 후원자님들의 모습이 한분씩 떠올랐습니다.

어떡하지 한참 하다가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서는 차를 팔면 그것으로 끝인데다가 차를 산지가 거의 두달이 흘렀고 사실 차가 너무 아까와 운행을 하지 않았고 차를 샀을 때 계약서가 AS IS(현상태에서 구입)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를 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관이 우리 유치원 교사의 언니여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더니 자동차 판매자를 불러서 돈을 조금 더 주는 조건으로 다른 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도 하는 가 봅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선교사 들

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몇날 며칠을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주님과의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다. 할렐루야

*****기도제목 *****

1. 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는데다 휘발유값이 두배로 폭등하여 생활 모든 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새로운 말라위 정부와 위정자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사륜구동 자동차 구입을 허락하셔서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 100채 집짓기 사역이 2026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